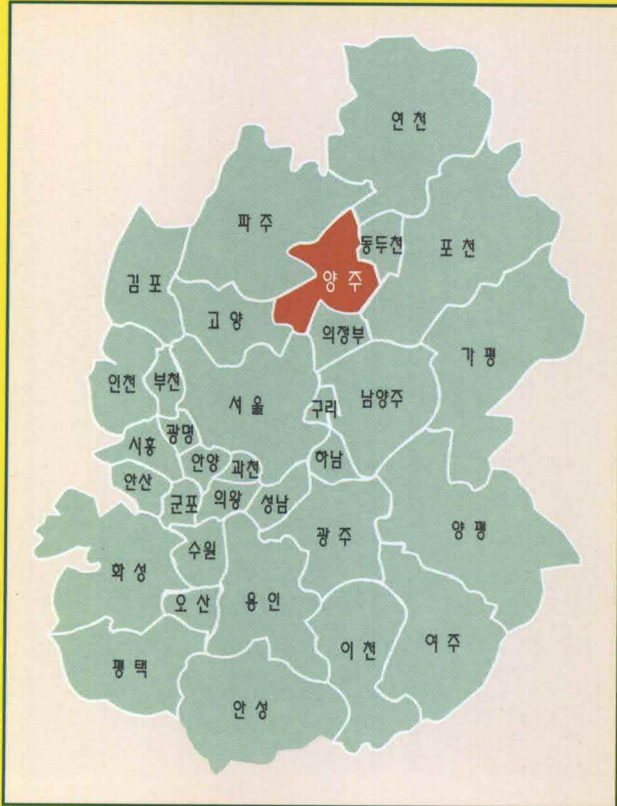


양주군

별산대 놀이

상여와 회다지소리

대뜰음 놀이



별산대 놀이

1. 전승지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2. 유래 및 해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호(1964년 2월 7일 지정)인 양주산대놀이는 서울 중심의 경

지지방에서 연희되어져 내려온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일부파로 ‘양주 별산대놀이’라고도 불려 왔다. 오늘날 산대놀이라고 하면 양주 별산대놀이를 가리킬 만큼 유일한 것으로 남아왔는데, 본산대(本山臺)라고한 녹번(碌磻) 아현(阿峴) 등지의 산대놀이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본산대가 다 없어져 알 길이 없으나, 본산대를 본받아 만들어졌다고 하는 양주 별산대놀이와 큰 차이가 없



었다고 전해온다. 산대도감극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속칭 “산대도감놀이” “산디놀이” “산지놀이” “산대놀이” “산두나레도감” “산두” “나레도감” 등의 별칭이 있고 천칭으로는 ‘딱딱이패’라고 하였다.

산대도감극의 기원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의견 중에서 대조적인 것은 李惠求의 ‘기악과의 同一起源說’과 조동일의 ‘서낭굿 起源說’일 것이나 이것은 가면의 기원과 그 발달의 경우처럼 토착적인 가면극에 大陸傳來의 가면희가 영향을 주어 오늘날 산대도감극의 발생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하는 기원설을 기본적인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① 사천년전 개 殷의 연주가 너과씨의 사당에 일년춘추이회거동하얏습니다. 여과씨측천하 일색이라 그 화상을 보고 紂가 欽慕하여 내심에 월 오평생에 원취비지녀하여 작배동거 하얏으면 하니 여화지신이 노이육징비망상 하야 명구미호월방념소가지녀여기가 일색인 즉 파필구혼간비여의리니 여가 단기를 잡아 먹고 그형용을 뒤집어 써서 가파후 수오지명 하야 작만곡지화하라, 연취달기하니 달기독 연작제곡악사하여 살충신하니 비간이 간이 사가 적비시야라 토사제흔이 화위요귀하야 작난이 영심하니 강래공이 비를 제거키 위하 여 주천지교성등하야 회수요귀하얏나니 비가 원인이고
- ② 고려말년에 승 신돈이 도승이 되랴 할 시에 백성중 호사제등이 비방왕 비하도승고 필이 녀색으로 시이래기공부하리라 하고 이소무당으로 감케 하니 무간별지목이라 신의 방랑이 무소불지하니 비축소지당등이 수지왕도 승과 첩등이 수유여가동작이나 타인이 볼득 전축중심지지소약이 미유불가라하야 역은

중인승합석에 작귀래하야 역은 휴지오천왕 비축정승지지라 하야 방산방수에 방욕회유 하니 소무당은 자기의사의 행세를 하고 도승은 주의 행세를 하얏다.

- ③ 본국이조병자호난에 속간지방하야 이어가예 시에는 상부사가 필래하야 원전금강산하니 유경식지 신상등이 상의안출산회도감유회하야 이대금간유각하니 비축성폐지정신이라 청사래시에 산대역인등 무학현에서 양이 전배입성하니 비 이조상유산회도감유회지원 하야 후에 청사가 비를 보기 싫다고 하는 자 있어 산대대전지열로 유흠.

산대놀이가 연희자들은 궁중 천역에 종사하던 평민(편놈)들로 서울 문밖에 살았고 인조조 이후 공의로서의 산대연희가 폐지되자 이들은 분산하여 제각기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산대놀이단체(계)를 모으고 제각기 경향각지를 순회한 결과 녹번리산대, 애오개(아현)산대, 노량진산대, 퇴계원산대, 사직골(社稷) 딱딱이패 등이 생겼다 한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분파형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유래설이 전해온다 양주골에서는 200년 전부터 해마다 주로 4월 초파일과 5월 단오에 한양 사직골 딱딱이패(白丁, 상두꾼, 건달로 구성되었다고 한다)를 초청하여 산대놀이를 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지방순회 등으로 공연약속을 어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불편을 느낀 나머지 양주골에서 신명이 과한 자들끼리(주로 판아의 하리배, 즉 아전) 사직골 딱딱이패를 본떠 가면 등을 제작하고 실연한 결과 그 성과가 나쁘지 않아 의외의 성공을 거두고 난 뒤부터 발전시켜 내려온 것이 양주 별산 놀이이며, 당시의 중심인물은 이을축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양주 최초의 가면제작자 라고도전한다

양주 옛읍은 남으로 한경(漢京), 북으로 상수역-적성-마전-연천방면, 동북으로 동두천-영평방면, 동으로 송우리-포천방면으로 통하던 교통의 네거리이며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 되어 주막이 즐비했었다. 이곳은 양주목사가 주재하던 곳으로 한강 이북에서는 제일 큰 고을로 유양팔경, 향교, 고적등의 탐과 비석, 승학교, 문루 등의 유적이 남아 있고 임걱정 전설도 구전되어 온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민간오락화된 양주산대놀이는 목사가 주재하던 객문동을 중심으로 소위 본바닥 사람들만이 출 수 있는 독특한 탈춤으로 전승되어 왔다. 이곳 주민들은 대개 유희, 오락을 좋아하고 서사, 아전적 성격이 짙다.

양주목이 있던 양주구읍, 양주읍내는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주내면 유양리이며 조선시대에는 계속 군행정을 집행하던 곳이었고 일제강점 후 1922년에 군청이 의정부로 옮겨지고 한국전쟁 후에는 면사무소와 경찰파출소마저 남방리로 이전하여 현재는 리 단위의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 현재 총 3,186호에 12,452명이 거주하고 있어 조선시대 관아에 속하였던 하사배가 탈춤을 전승하여 온 봉산구읍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금도 대모산성터가 남아 있지만 마을은 성으로 둘러싸였었고 객문동 동측에 흥문이 있어 '꽃방아 타령' 또는 '취발이 노래'란 것이 전한다. 동네에는 세군대 부군당이 있었는데 둘은 객문동에, 하나는 동부동에 있었으며 국사당은 신목만 불곡산에 남아 있고 동부동 동쪽에 서낭당이 있고 산신당은 한국전쟁 전까지 남아 있었다. 사직당은 없어졌는데 이곳은 새젓골이라 부르며 양주산대놀이의 놀이터(야외무대)가 있었던 자리이다.

원래 산대란 말은 산봉, 채봉, 연산 등을 전부 포함한 범칭으로 잡희를 노는 일종의

높은 무대배경이나 무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산대도감극 또는 산대놀이라는 호칭은 한때 나레도감이나 산대도감에 속하고 산대라는 공의의 무대에서 놀던 때의 호칭을 물려 받은 것이지만 공의로서의 뒷받침이 없어지고 민속극화된 뒤부터 산대놀이터는 더욱 간소화한 야외무대가 되고 말았다. <경도잡지>에서 산대극을 야희로 분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구성 및 줄거리

1) 연희시기와 장소

양주 산대놀이는 사월 초파일, 오월 단오, 팔월 추석에 주로 연희되고 대소명절 이외에 기우제같은 때에도 연희되었는데 제 격식대로 하면 놀이전의 고사에는 제주(조라)와 떡과 삼색과일 외에 소머리며 돼지다리 등 푸짐한 제물이 올라야 하고 그 제물과 제주를 음복하여 술기가 돌아야 놀이가 시작되었다. 저녁에는 가면을 쓰고 동헌을 비롯하여 육방을 돌아 수아아하고 초청에 응하여 타 지방으로도 순회하며 응분의 전곡이나 주식을 대접 받았다. 놀이비용은 마을 유지들과 부자나 상인들이 추렴하고 연희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였다고 한다.

최근까지 행하던 놀이로는 사월 초파일의 '관등놀이'가 유명한데 1년 중 제일 화려한 축전으로 관등놀이 때는 온 마을이 등으로 장식되고 특히 승학교에 '굴등'을 달아 장관을 이룬다 굴등은 줄을 매고 몇 개의 등을 달아 놀이며, 등 사이에는 불꽃이 튀는 연소체메를 달았다. 이때 사직골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전에는 장작불이었으나 근래에는 숯방망이를 석유에 담가서 불을 붙인다) 산대놀

이가 시작된다. 양주 별산대놀이터는 주로 마을 북서쪽 불용산 아래의 사직골이었고, 여기에는 당집이 있어 탈과 도구들을 보관하였다. 사직골 놀이터는 불곡산 기슭의 비탈진 곳에 관객들이 앉고, 그 앞의 공지 한쪽에 개복청을 설치하며, 그 맞은편에 악사들이 앉으면 삼현청이 설치되어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막의 설비는 없고 등장인물은 개복청이나 삼현청으로부터 등장한다. 그러나 사직당이 없어지고 사직단 앞의 놀이터가 경작지로 바뀐 뒤부터는 마을 뒷산 송림속의 잔디밭에서 연회되었다. 그 후에는 향교의 외삼문 안마당이나 전수회관 앞뜰에서 주로 낮에 연회되다가, 1985년 10월에 전수회관이 개축되어 현대식 설비가 갖추어짐에 따라 주야를 막론하고 연회가 가능하여 졌다.

2) 줄거리

양주 별산대놀이의 과장 구분은 엄격한 편이 아니다. 또한 현대 연극처럼 첫과장에서 끝과장까지 연속체로 된 드라마가 아니고 코메디아델아르테(commedia dell'arte)처럼 주제별로 된 몇 개의 드라마가 옴니버스 스타일(omnibus style)로 한 테두리 속에 들어 있다. 다만 채록자들에 의하여 제각기의 관점에서 정리해 왔고, 구술자들은 신장수(말뚝이) 과장과 취발이 과장을 따로 독립시켜 전 10과장으로 나누기도 하나 그 성질상 노장 과장에 포함시켜 모두 8과장 8경으로 구성되어 연회되고 있다. 현재 전하는 양주 별산대놀이의 내용은 산대도감계통극의 공통된 내용으로 조선 서민문학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기타 노유 서민들의 등장을 통하여 현실 폭로와 풍자, 호색, 웃음과 탄식을 보여준다.

그 주제로는 (1) 벽아의 의식무 (2) 파계승에 대한 풍자 (3) 양반에 대한 모욕 (4) 남녀의 갈등 (5) 서민생활의 곤궁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당시의 특권계급과 형식도덕에 대한 일종의 반항정신을 구체적으로 연출하는 민중극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민중극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약점이나 시류의 악폐, 당시 호사를 부리던 계층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패러디(parody)로 이러한 서민문학성은 임진, 병자병란 이후 서민문화의 주류를 이룬 사조로서 서민예술의 하나인 산대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각 놀이마다 주제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가령 남녀 삼각관계의 설정에서 봉산탈춤, 오광대놀이, 꼭두각시놀이 등은 남녀의 갈등을 강조하여 영감과 미약, 그리고 첩과의 관계를 다룬데 비하여 양주 별산대놀이에서는 신할아버지 과장에서 부부관계에 첩을 등장시키지 않는 대신 샌님 과장에서 샌님과 포도부장, 그리고 소첩과의 삼각관계를 설정하여 남녀의 갈등보다는 양반과 평민의 대립관계에 역점을 두고 양반에 대한 모욕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방에 따른 계급차별과 남녀차별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등장인물과 그 특징 및 내용을 과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길놀이(거리굿)

출연자 전원

서막고사

출연자 전원

상작무

첫째상작 : 8-9세 정도 된 어린 상작중(놀이에서는 어른이 공연한다)

염불곡에 맞추어 거드름춤과 팔뚝잡이춤을 추고, 터령곡에 맞추어 깨끼춤을 춘다.

음중과 상좌

음중: 음을 읊은 중으로 장난이 잦은 팔먹중에 속한다.

상좌

채담을 하며 엄볼극 장단에 맞추어 거드름춤을 춘다.

음중과 먹중(목중)

먹중(원먹중): 팔먹중의 한사람

음중

음중의 의관, 얼굴에 대해 채담을 하며 춤을 춘다.

연잎과 눈끔적이

연잎: 도가 높은 고승으로 생명체가 눈에 비치면 죽기 때문에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천상살)

눈끔적이: 연잎을 보필하는 사람으로 장삼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전에는 눈을 끔적끔적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연잎이 춤을 출때 장내에 잡귀가 범치 못하게 한다. (지상살)

완보: 팔먹중 가운데서 가장 아는 것이 많으며, 나이가 다른 먹중에 비하여 조금 많다.

음중

원먹중

가먹중(3명): 팔먹중에 속한다.

첫째상좌

둘째상좌: 15-16세된 소년중으로 팔먹중에 속한다.

연잎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앞에 서고 눈끔적이는 장삼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뒤따르며, 음중과 먹중들은 연잎과 눈끔적이를 보고 놀러 퇴장한다. 연잎과 눈끔적이의 출현은 봉산탈춤의 사자출현처럼 비속한 중들을 징벌하기 위한 구실을 한다.

신할미와 미알할미

신할아버: 나이가 많고 늙은 서민의 한사람이다.

미알할미: 신할아버의 부인으로 속이 좁고 성미가 대단히 급하다.

도끼누이: 신할아버의 딸로 무당을 겸하고 있다. 본래 성미가 괴팍하여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몸을 팔아 살다 늙어져서는 남의 집 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간다.

도끼: 신할아버의 아들이다. 팔난봉으로 이리저리 돌아다

니며, 방탕스런 마음의 소유자로 건달이 되어 놀이판에 왔다가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고 함께 산다.

* 지노귀굿

늙은 노인 신할아버가 마누라인 미알할미와 함께 노랫소로 이별가를 부르고 다투다가 미알할미가 죽자 아들 도끼와 딸 도끼누이를 불러 함께 장사를 지낸다. 이때 도끼누이가 무당이 되어 무가를 부르고, 지노귀굿을 하며 끝낸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횡포와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굿의 흔적이 농후하게 나타난다.

비고: 팔먹중(팔목중)-먹중(목중)이란 속이 검은 것이며, 팔먹중은 완보.원먹중.둘째상좌 등 4명과 가먹중 4명을 합한 8명의 먹중을 가르킨다.

완보-완보는 원먹중이었는데 옛 연희자 중에 김완보라는 사람이 원먹중 역을 잘하여 원먹중 대신 완보라고 부르면서 유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료: 양주 별산대놀이보존회 제공.

3) 춤과 음악

(1) 춤

양주 별산대놀이의 춤은 봉산탈춤의 깨끼춤이나 오광대놀이의 덧배기춤에 비하여 비교적 전갈한 맛이 있고, 형식미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아마 경기인의 기질이나 궁중무 등의 영향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좀더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춤은 어느 탈춤보다도 자세하며, 크게 거드름춤과 깨끼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춤의 문구(불림)

- 금강산이 좋단 말을 풍편에 던졌든고
-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룡황룡이 꿈트러

지고

- 영양소아 재박수하니 난가쟁창 백동지라
- 소상변죽 열두마디를 후리쳐 잡고서
-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 낙일이옥물 현산서 도착접이 화하미
- 나비야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
도가자
- 달아달아 밝은달아 태백이 죽어서 비상
천하고
- 원산첩첩 곤산넘어 태산이 출렁
- 처라 처라 철철 절이 절수
- 절수-절수-지화-자자-조르르...
- 처라

■ 춤의 명연희자

양주별산대놀이 춤의 명연희자로 기억되는 사람들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좌춤의 대가로는 약 190여 년(1990년대 기준)전의 노경무, 140여 년전의 박광현, 100년 전의 김수안, 100여년 전의 성준삼.김순봉, 60년 전의 박기득, 그리고 1971년에 작고한 박상향(1890-1971)등을 들 수 있다. 상좌춤.옴중춤.노장춤은 특히 산대춤의 기본이 되는 춤이며, 상좌춤은 몸맵시가 예뻐야 맡을 수 있는 어려운 춤의 하나였다.

노장춤의 명수로는 약180여 년전의 이을축, 140여 년전의 신복홍, 110여 년전의 권봉국, 80여 년전의 이진식.권진구, 60년 전의 이학선, 그리고 김성태(1894-1962), 이장순(?-1963), 박동환(1888-1965), 생존자로는 고명달 등을 들 수 있다.

옴중춤은 190년 전의 유연혁, 140년 전의 김달원, 100년 전의 석성묵, 80년 전의 박중철, 60년 전의 김창합, 박준섭(1886-1959)등이 잘 추었고, 아들 박교웅(1922-1982)도 말뚝이역을 잘하였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최근 명연희자였던 김성태는 특히 노장과 취발이역을 잘 하였으며, 그의 부친 김성운은 왜장녀역을 잘하였다. 왜장녀는 애사당놀이에 등장하여 허리가 드러난 여자옷에 배를 내놓고 미친듯이 날뛰는 춤을 추는데, 이때에 배꼽춤을 추게 된다. 김성태의 배꼽춤은 그의 부친과 이창유의 춤을 본받아 배운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배꼽춤 계승자가 없다. 김성태의 모친은 일명 옴팽이 만신으로 양주 일대에서 소문난 안무당이었고, 그의 부친은 무당서방으로서 다른 반농반예적인 연희자들에 비해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의 사랑방을 산대놀이 집합장소로 제공하여 매일 연습하고, 초청에 응하여 순회공연도 하며 산대놀이를 주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무당과 산대놀이의 제휴는 가면제작자의 한 사람이었던 신순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승냥이 만신의 남편이었다. 1991년 12월에 사망한 무당 조영자는 옴팽이 만신의 신딸이었으므로 김성태와는 수양남매간이며, 김성태의 아들 김상용(1926~)은 3대째 산대춤을 계승하고 있는데 특히 목중춤을 잘 추며, 그는 조무녀를 고모라고 부른다.

이밖의 춤의 명수로서 약 100년 전의 정한규는 신할아버이를 잘하였고, 이장순의 선친 이윤서는 취발이역을 잘하였다. 약 100년 전의 이창유는 샌님, 목중, 말뚝이역을 잘하였고, 특히 배꼽춤을 잘 추었다. 약 80년 전 조종순은 취발이역을 잘하였다. 박준섭에 의하면 포도부장 놀이 끝에는 정한규가 포도부장의 검무를 추었는데 그 뒤 배운 사람이 없어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2) 음 악

양주 별산대놀이에서도 다른 탈춤놀이와

마찬가지로 춤과 음악, 노래, 덕담, 가사 등이 주가 된다. 반주악기로는 삼현육각, 즉 피리, 들.젓대 하나, 해금 하나, 장고 하나, 북 하나이다. 이 외에 팽과리를 추가하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리와 장고만으로도 춤을 춘다. 반주되는 악곡과 장단, 노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악 곡

- 영산회상, 염불곡(염불타령)
- 느린 허튼타령
- 느린 굿거리
- 중 허튼타령
- 자진 굿거리
- 자진 허튼타령

■ 장 단

- 염불
- 자진굿거리
- 허튼타령
- 세 마치
- 느린 굿거리
- 7채 맺음

■ 노 래

노래는 장단을 청하는 짝막한 불림과 그 밖에 몇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지 수가 많지 않으며, 덕담 외에는 첫 허두만 부르다가 곧 재담이나 춤으로 바뀌버리는 동작의 전기적 역할을 한다.

등장가(세 마치)

“등장가세 등장가세
그무슨 연유로 등장가나
늙으신 노인은 죽지 말고

젊은 흥안은 늙지않게
하느님 전으로 등장가세”

백구타령(세 마치)

“백구야 꺾충 날지마라
너를잡을 내아니다
성상이 버리심에
너를좃아 예왔노라
오류춘광 경중한데
백마타고 화류가세
삼청동 화계동 도화동도 동이른데
동소문 밖을 썩나서서
안암동도 동이요
경상도로 썩 내려서서
모시닷동 배닷동
충청도로 올라서서
무명닷동 명주닷동
사오이십 스므동을
돌돌말아 짚어지고
문경새재를 썩 넘어서니
난데없는 도적놈이”

조기잡이(느린 굿거리)

“여기야-저기야-강화로다
어호야-어호야-강화로구나
아할야할야할-
보리동량-갈까-대라
야할-야할
야할-야할
밀동량-갈까-대라”

야할타령(느린 굿거리)

*“야할-야할
야할-야할
야할야할야할

야할-아할-
야할-아할-
야할야할야할-”(중략)

■ 덕담(德談)

염불덕담

“해동은 조선국이라
삼십칠관이 걸렸구나
이씨한양 등극전에
봉학이 년죽 걸렸으니
봉학을 늘러 대궐짓고
대궐 밖에는 육조로다
육조 밖에는 오영문시오
각도 각읍을 마련할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이씨부인 마마께서
물아래 출입 하옵시다
의주 압록강 썩건너서서
의주 구경 나갔네
의주 부인 마마께서
자손창원 발원일세
어떤자손 발원인가
상남에는 서방님
중남에는 도련님
하남에는 옥동같은 귀한애기
어깨넘어로 설동자
가지불듯 오이불듯
무럭무럭 자라나
그 애기 점점자라
어떤배를 잡아타나
나무배를 잡아타니
나무라고 썩어지고
돌배를 잡아타니”
(중략)

■ 가사(歌詞)

취발이 가사

“나비아 나비아 청산가자
호랑나비 너도가자
구시월 새단풍에
된서리 맞아 낙엽져
여나무뚱 되지말고
만첩청산 깊은골에
씩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두눈이 뿌영도록
서로치기나 하다
한세생 보내는 것이
어떠하냐?”

3) 탈과 복식

양주 별산대놀이의 탈은 예전에는 주로 종이나 나무로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바가지로 만든탈이 주를 이룬다. 탈마다 일정한 도형을 갖고 있어 그바탕에 의해 제작되나 주 재료가 바가지이므로 제작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의 재료로는 송과, 한지, 풀, 아교, 물감등을 쓰며 김성태의 말에 의하면 일정한 견본을 본뜨는 것이 아니라 눈에 익은 탈의 영상에서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탈들은 봉산탈에 비하여 보다 사실적이며, 조선시대 민예의 혼력과미를 한껏 보여준다.

양주 별산대놀이에 등장하는 배역의 총 인원은 32명이다. 그러나 겸용하는 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탈의 수는 22개 내외이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탈은 재담과 노래를 하는 유언탈과 시종일관 춤과 동작만 하는 무언탈(명추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언탈에는 원떡중, 가떡중, 음중, 신주부, 완보, 말뚝이, 신장수, 취발이, 도련님, 샌님, 쇠뚝이, 신할애

비, 도끼누이, 도끼, 아들 등이 있으며, 무언탈에는 첫째상좌, 둘째상좌, 눈끔적이, 연잎, 원숭이, 왜장녀, 애사당, 노장, 해산모, 서방님, 포도부장, 미알할미 등이 있다.

4. 특 징

양주 별산대놀이는 다른 한국 가면극의 연출형태와 마찬가지로 음악 반주에 춤이 주가 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묵극적인 몸짓(과)과 덕담 또는 재담이라고 하는 사설(白), 즉 대사가 따르는 연극적인 부분으로 구성·공연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연극에 있어서의 공통된 특성으로 음악·무용·드라마가 단원적 앙상블(monistic ensemble)을 형성하여 완결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점이 구미 연극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체(또는 종합)연극(total theatre)'의 개념과 합치하는 특징이며, 이른바 동양연극의 시아트리칼리즘(theatricalism)이다.

양주 별산대놀이 각 배역의 연출형태를 보면, 상좌, 연잎, 눈끔적이, 왜장녀, 애사당, 소무, 노장, 원숭이, 해산모, 포도부장, 미알할미 역은 대사가 없고 춤과 몸짓과 동작으로만 연기하지만, 그 밖의 배역들은 대사와 함께 춤과 몸짓 및 동작으로 연기한다.

대사의 특징을 보면 덕담은 무당으로 부터의 차용이고 재담은 결말을 쓴다든가 비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비적, 민속적 전승의 한 특징이며, 봉산탈춤의 대사가 비교적 옛 것을 고집하고 있는 데 비하여 양주 별산대산놀이는 평범한 일상회화조의 대사이다. 음과 취발이의 대사는 이 놀이 대사 중의 백미로 관

중의 흥미를 끌었다. 그러나 취발이 대사는 너무 노골적이라 취발이가 등장할 무렵이면 부녀 관객은 물러가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 말없는 탈의 연기에서는 노장 팬터마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시중 대사 한 마디 없이 춤과 몸짓으로만 소무와의 놀이, 즉 파계 과정을 훌륭히 한 마당의 놀이로 성립시키고 있다.

민속예능의 일반적 특징으로 연출시간에는 제한이 없어 보통 저녁에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때 그때의 흥과 형편에 따라 3~4시간으로 줄이는 수도 있었다. 이것은 주로 산대놀이의 대사가 구전이었으므로 신축이 자유로웠고, 또 춤도 신축이 가능한데서 오는 것이다. 지금은 예전보다 대체로 줄이는 경향이 많다.

5. 출연자 배역

<예능보유자>

김상용 : 도끼누이 노재영 : 신알아비

<예능보유자후보>

김순희 : 해산모, 미알할미

<조 교>

유한수 : 왜장녀 신혜준 : 노장, 샌님, 도끼

홍상현 : 음중, 원보 유경수 : 장고, 피리

<이수자>

김순옥 : 소무 박현숙 : 팔목중

김순홍 : 애사당, 소무 노종락 : 대금

고금모 : 팔목중 이해운 : 포도부장

서승국 : 취발이 김정선 : 말뚝이, 먹중

박기숙 : 둘째상좌 유묘순 : 첫째상좌, 팔목중, 원숭이

<전수자>

김명한 : 피리, 호적 박기운 : 상쇠, 팔목중

유명선 : 소무, 팔목중 김재건 : 팔목중

상여와 회다지소리

1. 전승지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고능마을

2. 유래 및 예설

1) 유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장례를 치르며 노래를 불러왔다.

중국의 고대기록을 보면 동방민족은 장례를 치르며 가무가 곁드려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 같다고 한것으로 봐서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었던것 같다.

이승에서 맺힌 한을 풀고 저승에 가게 되면 죽은 이에게도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행복한 일일뿐 아니라 저승에 간 조상은 후손에



게 덕을 베푸는 것이니 산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죽음을 맞아 치르는 장례의식은 호상(好喪)이라 하는 것도 죽은 조상이나 산 자손에게 모두 복이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죽음을 맞는 의식을 되도록이면 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이 상열를 화려하게 꾸미고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정성껏 부르는 풍습도 낳았다고 할 것이다.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고능말은 예로부터 소리고장으로 이름이 있었다. 근처에 산성이 있어 삼국시대이래 호국의 기틀이 되었고 주위 산세가 빼어나 역대 임금의 능이 많이 모여 있어 명당자리가 많고, 따라서 인심 좋고 협동심이 강했던 250여 가구의 고능말 사람들은 장례문화를 알뜰히 가꾸어 왔고 따라서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또한 충실하게 전승 발전시켜 온 것이다.

2) 줄거리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발인에서 성분까지 이르는 장례절차마다 부르는 선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순서대로 구성하여 연출한 것이다.

(1) 상여의 행진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글로 장사지낼 때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든 만장(挽章)을 선두로 하고 이어서 상사의 혼을 쫓는 역할을 하는 방상을, 그리고 망자의 이름을 새긴 명정, 공포와 그 뒤에 혼백을 모신 요여, 상여 순으로 이어지고 상주와 주인, 일꾼, 이웃들이 따르며, 이때 선소리꾼이 요령을 흔들며 늑타령 두장단을 메기면 상두꾼들

이 타령 두장단을 [어허어허 어너리 넘차너화]하고 두장단을 받는다. 이렇게 선소리꾼이 구슬픈 상여소리를 상두꾼과 함께 주고 받으면서 외나무다리등 장애물을 지나서 장지에 가까워오면 자진소리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자진타령 한장단을 메기면 상두꾼들이 [오호오호]한 한장단을 받는다.

(2) 회다지소리와 울동

상여가 장지에 당도하면 광주에 하관하고 달구질하며 회다지소리를 부른다. 양주 고능말에서는 회다지에 긴달고소리, 꽃방아타령, 어러러소리3종이 있다.

먼저 긴달고소리를 부르는데 중간에 회심곡 사설을 부르기도 한다. 선소리꾼이 북을 [둥둥둥]치고 [지방(굽방)님네]하고 길게 소리로 부르면 달구꾼들이[예-]하고 대답하면 선소리꾼이 [옛날 옛법 버리지 말고 새법내지 말고 옛노인 허시던 회방아 한번 찌어봅세]하고 나서,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느리게 선소리를 무장단으로 메기면] 달구꾼들이 [예 예이 오호 달고]하고 무장단으로 길게 받으며 달구대로 흙을 쓰시며 발로 흙을 밟는다.

조금지나면 자진달구소리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타령 한장단을 메기면 달구꾼들이 한장단을 [에허라 달구]하고 받는다. 선소리꾼은 회심곡 사설을 메기기도 하고 초한가를 메기기도 한다.

끝날 무렵이 되면 꽃방아타령으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타령 4장단의 앞소리를 메기면 달구꾼들이 [에에 에헤야 에에이 에헤야 에야아 뒤히야 에헤이 좋소]하고 4장단의 뒷소리를 받으며 달구질을 한다.

방아타령을 마치면 어허리 소리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타령 2장단을 메기

면 달구꾼들이 달구질하며 [어허어리 어허어 하]하고 두장단의 뒷소리를 받는다.

다음에는 상사소리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타령 한장단에 선소리를 메기면 달구꾼들이 [얼닐닐 상사뒤야]한장단에 뒷소리를 받으면 달구질을 한다.

맨끝에는 훅훅소리로 마친다.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한장단을 메기면 달구꾼이 한장단의[우후야 훅훅]하고 뒷소리를 받는다.

달구질이 모두 끝나고 봉분을 완성함으로 퇴장한다.

3) 특 징

양주 고능말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경기도 서북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상여소리는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나누어지며 회다지소리는 긴달구소리, 자진달구소리, 회심곡, 초한가, 꽃방야타령, 상사소리, 몸돌여소리로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따라서 곡조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장단은 타령장단이 주가 되며 일의 순서에 긴소리는 늦타령장단이 쓰이고 자진소리는 자진타령장단이 쓰인다. 타령장단은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양주 고능말 상여와 회다지 소리의 선율은 대부분 경조(경기민요조)로 되어 있다.

경조는 경기도 서북지역에 주로 쓰이는 소리체로 깨끗하고 화창한 느낌을 준다. 느린 소리의 경우에는 서도지역 수심가처럼 심금을 울리는 슬픈 느낌을 주기도 한다.

3. 구 성

배역	성명
선소리	송덕경, 김병옥
상두꾼	김영구, 정중훈, 김형배, 고희석, 임기준 최장환, 정남훈, 김경환, 정의훈, 송기섭 김원배, 김순목, 김창배
달구꾼	고희석, 김창배, 임기준, 정남훈, 정의훈 정중훈, 최정환, 김형배, 김원배, 김순목 임근준
만장	신순봉, 성덕경, 김용필, 정중훈, 박순봉 김남용, 김광선, 이완돈, 권중만, 김연태 김정원, 김용길, 최만석, 한두철, 문광명
방상	송미섭, 김상열
곡비	김진영, 임채학
행자	조학운, 박노민
요여	신성철, 이유홍
백가마	황의천, 이병춘
남상제	김환익, 김덕춘, 김복길, 김광현
여상제	함경순, 지말숙, 엄인순
일꾼	김상만, 윤종국, 김낙경, 김순목, 김재복 권중홍, 김운홍, 김연익, 김흥기, 변명철 양일석, 김주석, 임명원, 정영화, 박윤식 정영길, 이원철, 조학수, 평생춘, 정봉훈 김수학, 조덕원, 김복길, 최인환, 김광현 문광영, 김남용, 김건용, 윤완식, 김덕춘 이정님

대돌음놀이

1. 전승지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 큰너미 마을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양주지방에서는 출상 전날 상가집에서 하

는 상여놀이를 “대돌음”이라 한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장례를 하면 곧 북을 치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가운데 주검을 묘지로 운반하였다”고 한것으로 보아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이었던 것 같다. “대돌음”의 “대”는 곧 상여틀을 말한다. 상여의 신명을 돋우어 주어서 비통한 상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상두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여를 메는 일에 참여 하도록 하는 뜻이 갈무리 되어



있으며 특히 대돋움은 죽은 사람의 나이가 70-80세가 되고 상주들 나이가 한 50세가 되며 가정이 유복한 경우로 “호상(호상)”이라하여 자식으로서 떳떳하게 생각하고 상례를 즐거운 마음으로 치르며 부모의 저승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상주가 상두꾼에게 대돋음을 청한다.

2) 예 설

대돋움은 상여가 나기 전날 저녁에 상가집에서 한다. 상주는 상두꾼과 마을 어른들을 청하여 술, 고기등을 대접하고 상두꾼에게 수건, 장갑, 신발, 담배, 양말, 맥고모자등을 주어 술을 한잔씩 하고 돋움을 올린다.

발원식 부터한다. 상여를 미리 꾸며서 준비하고 상두꾼을 동원하여 운상 연습을 함으로써 다음날 운구에 차질없도록 점검하는 실제적 구실을 한다. 사전에 상여의 부품들을 점검하고 상두꾼의 동원을 확인하는 것은 다음날의 운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선소리꾼이 하기 나름으로 신명이 나면 상여를 메고 춤을 춘다. 웃는 것보다 앞소리를 들으면 구슬프다. 재미라는 것은 슬픈것을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돋움은 순전히 웃기는 난장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울리는 정서적 공감의 재미로 함께하는 상여놀이로 풍습을 낳았다고 할 것이다.

양주지방은 예로부터 소리고장으로 이름이 있었다. 삼국시대이래 호국의 기틀이 되었고 산자수명하여 역대 임금의 능이 많이 모여져 있어 명당자리가 많고 인심후덕한 양주사람들은 상례문화를 꾸준히 지켜왔고 따라서 “양주대돋움놀이” 또한 충실하게 전승발전시켜 온것이다.

3) 특 징

대돋움의 선소리는 상여소리를 부르며 양주상여소리는 경기도 서북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상여소리는 긴소리와 자진소리로 나누어지며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따라서 곡조가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장단은 타령장단이 주가 되며 일의 순서에 긴소리는 늦타령장단이 쓰이고 자진소리는 자진타령 장단이 쓰인다. 타령장단은 경쾌하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양주상여소리의 선율은 대부분 경조(경기민요조)로 되어 있다. 경조는 경기도 서북지역에 주로 쓰이는 소리제로 깨끗하고 화창한 느낌을 준다. 느린소리의 경우에는 서도지역 수심가처럼 심금을 울리는 슬픈 느낌 주기도 한다.

4) 줄거리

양주대돋움놀이는 출상전날 상가집에서하는 상여놀이로

첫째는 망자가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하루 잘 놀다가라는 뜻이며

둘째는 상주로서 망자의 저승길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마지막 효도로

셋째는 상례기간 계속되는 금기와 슬픔으로 억눌려 있는 기분을 운구와 더불어 해소하기 위해서

네째는 죽음은 이승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비통한 일이지만 저승에서 다시나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점에서 축복해야할 일이다.

다섯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확인하고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부추켜 주는 구실도 함으로

여섯째는 현실적으로 상여를 미리 꾸며서 준비를 하고 상두꾼을 동원하여 운상연습을 함으로써 다음날 운구에 자질이 없도록 점검

하는 실제적 구실을 하는 과정을 연출한 것이다.

■ 제1과정 빈상여놀이

이승에서의 죽음은 슬픔일 수 있지만 저승에서의 환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장례는 슬픔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따른 축복의 의식도 필요함으로 빈상여놀이의 또다른 기능이라 하겠다.

상가에 빈소가 차려져 있고 조객들이 조문을 드리고 있는 저녁무렵 선소리꾼과 상두꾼이 다 모이면 술과고기를 대접한 다음 대돋움놀이에 앞서 발원식을 갖는다.

사체를 신지 않은 빈 상여를 점검한 후 상두꾼이 상여를 메면 선소리꾼은 “내가 너희들 자랄때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가며 잘 키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섬섬히 보낼 수 있나?” 하는 그런뜻으로 대돋움을 한다. 또한 선소리꾼은 상가집에 대한 살림은 어느정도 어떻게 해 냈는지, 자녀는 몇남매를 낳았는지 그리고 부인은 시집올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두루 알아와서 대돋움을 하는데 사정을 봐주지 않고 신명나게 선소리를 메긴다. 그런후 상여를 상가집 밖으로 이동하며 집을 여러차례 돌며 망자가 떠나감을 아쉬워 하는듯 선소리꾼은 요령을 흔들며 늦타령 두장단을 메기면 상두꾼들이 타령 두장단을 [어허어허 어너리 넘차너화]하고 두 장단을 받는다.

이렇게 선소리꾼이 구슬픈 상여소리를 상두꾼과 함께 주고 받으면서 대문에 다시 와서는 자진소리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자진타령 한장단을 메기면 상두꾼들이 [오호오호]한 한 장단은 받는다.

■ 제2과정 거짓상주놀이 및 사위태우기

빈상여가 여러차례 상가집을 돌다가 대문에 당도하면 상주는 재배하고 돈을 놓고 상여 옆에 선다.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상주가입은 상복은 차마 뺏어 입지 못하고 이웃에서 상복을 얻어 입고 와서 상주옆이나 앞에서 가지고서 상주행세를 하며 냇두리를한다. “아이구 원통치, 시원치”하면서 엉뚱하게 냇두리를 하며 곡을 하면, 상주가 지팡이로 떠밀어낸다. 그러면 곧장 다가와서 “내가 상주할게”하고 거짓 상주노릇을 계속한다. 더 깃곳은 사람은 안상주처럼 삼베치마를 차려입고 뒤뚱뒤뚱 걸으며 곡을 하는 척하다가 큰소리로 냇두리를 한다.

“아이고 아이고 그나저나 잘죽었다. 잘죽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랑차지 내치지래도”
 “처마끝에 늦요강을 이제 누가 왜 달라고 하느냐”
 “뉘를 많이 벌어서 그다지도 잘 죽었노”
 “속이 다 선하지”(이하 중략)

3. 구 성

■ 양주 대돋움놀이 출연자 명단

배역	성명
선소리꾼	김환익, 김병옥, 김진명
각설이	이찬행, 김기숙
상제	조근동, 김규범, 신영광, 이해섭, 윤종운
사위	윤창길, 김광명, 이영성
머느리	신화자, 김향주, 박미옥, 김명순, 이순덕
딸	최미정, 김재순, 한미라
준비	성기남, 조일중, 최민호
조문객	방성리노인

배역	성명
상두꾼	권태준, 고승윤, 최창수, 김준기, 구본영
	김인태, 송정식, 강병석, 이보선, 구지희
	윤희환, 김성규, 이남걸, 김세열, 이영건
	박석순, 권역상, 김익래, 유한규, 정준호
	윤남수, 신성윤, 송정배, 유승용

■ 양주 대뜸음 놀이에 등장하는 주요 농요

장타령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에헤 이놈이 이래도 정
승판서 자제로 팔도강산 마다하고 각설이로만
돌았네

정월이라 대보름은 답교하는 명절이라 칭춘남
녀는 짝을 지어 낭낭 삼삼이 다니는데 우리님은
어데가고 답교하자는 말이 없나

이월이라 한식절은 개자추에 넘어로다 복만 산
천 찾아가서 무덤을 안고 통곡하니 무정하고 야
속한놈 왔느냐 고리도 없구나야

삼월이라 삼진날은 재미도 옛집을 찾아오고 기
흥득에 천공화에 기력기도 옛집을 찾는데 우리
님은 어데가고 집 찾아올 줄을 모르시나

사월이라 초파일은 석가모니에 탄일이요 집집
마다 등을 달고 자손방론을 하겠마는 하늘을 봐
야 별을 따지 임 없는 나야 소용있나

오월이라 단오절은 추천하는 명절이라 칭춘남
녀는 짝을 지어 임과 서로 추천하는데 우리님은
어데가고 추천하자는 말이 없나.(이하 중략)

긴상여 선소리타령

어허어허너하넌차어허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승길을 하직하고 저승으
로 나는 간다

어허어허너하넌차어허 후렴

어허어허 만당 같은 집을 두고 천금같은 자식두
고 어하넌차어허, 문전옥담 다버리고 원통해서
못가겠네 농내분들 모였으니 하직인사나 올리리
다 이제가면 언제오나 오는 날이나 알려주오. 일
가 친척이 많다 해도 어느 일가가 대신가며 친구
벗이 많다 한들 어느 친구가 동행할까 동기일신
많다해도 어느 동기가 대신갈소냐 어이 그리 못
가시나 이번가면 그만인데 언제 보자는 한올타
리나 시장하여 못가시나 목이 말라 못가시나 시
장하여 못가시면 진수성찬 올리리까 목이말라
못가시면 막걸리 삼잔올리리다.(이하 중략)

노장타령

에헤에헤야 에헤에헤야

에야에야에헤야 여헤

옛타 죽었구나 닭아 우지마라 네가올면 날이새
고 날이새면 엘루화 나죽는다.

옛타 죽었구나 나 죽은건 설지 안으나 앞못보는
우리부친 누구를 믿고 엘루화사 신다말가

달아 밝은달아 이래백이 노든달아 저기 저달속
에 제수나무가 예루화 나타내구나 옛타 좋구나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걸다듬어 삼간초
옥을 예루화 지여보세 옛타 좋구나 하늘이 높다

해도 산사오경에 이슬을 주고 북경길이 머다해
도 사신해차가 왕래를 하는데 황천길이 얼마나

멀길네 한번가면 엘루화영절이로다. 옛타 좋구
나 하늘천자따지땅에 집우자로 집을 짓고 나일
자 영창문을 달월같이 다라놓고 별진잘숙으로
예루화 잘살아 봄시다.(이하 중략)

회심곡 일부

어화 세상 버님네야 이내 한말 들어보세

세상에 나쁜사람 뒤덕으로 나왔는가 어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칠석 납전 명을
빌고 제석님전 복을 빌러 십삭이 지난후에 이세

상을 탄생하니 우리부모 남지를제 겨을이면 추
을세와 여름이떠더울세라 던진자리 비켜놓고
마른자리 골다 뉘며 고이 키웠건만 한두살에 철
을 물리 부모 은공 아들 손가 이삼십 당하여도
어이 입고 애달도다 무정싼월여류하야 원뽕백
발 도라오니 절통하고 애달도다 인간칠십고래
해다 업든 망녕 절노난다 낭닐이라 흥을 보고
구서 웃는 모양 애달고 스크닝고 절통하고 통분
여라 춘초는 연니 녹이요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
이생 늘거지면 다시접긴만무로다 인간백년 다
살어야 잠든 날과 병든날과 직접근심 다져하며
단사십을 못살인생 어제오늘 성튼봄에 저녁 나
절 병들어네 섭섭하고 약한몸에 태산는 병드리
노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찻느니 냉수로다 인삼
녹영 약을 쓰니 백약이 무효로다

답산가

천지가 조판후에 천황지황이 생기후에 인왕이
생겼으니 해동하국 조선국은 팔도 강산으로 나
누었으니 중국에 오학중에 골용산리 응룡이로
다. 함경도에는 백두산이요 두만강에 수기를 받
아 백두산 내린줄기에 함흥부가 생겼구려 평양
으로 올라와서 묘향산이 생겼으니 대동강에 수
기를 받아 묘향산 내린줄기에 단구천년 기자천
년 이전에 도올러라 황해도로 올라와서 구월사
님 생겨있고 강원도로 뜯떨어져서 금강산이 생
겼으니 동해바다 수기를 받고 비로봉이 생겼으
니 만고강산이 그 아니라나(이하 중략)

진 상여소리(어넘차 소리)

〈후렴〉으흐 으흐
어화 넘차 어화
〈선소리〉어화소리는
상두쭈의 소리
〈후렴〉〃
〈선소리〉상두쭈아 발맞춰라

유래근아 즐대려라
〈후렴〉〃
〈선소리〉이제 가면 언제오나
오만 날을 일러주오
〈후렴〉〃
〈선소리〉명년 삼월 봄이오면
산보차로 오시려나
〈후렴〉〃
〈후략〉

자진 상여소리(오호소리)

〈후렴〉으흐 으흐
〈선소리〉인제가면 언제오나
〈후렴〉인제가면 언제오나
〈선소리〉오만 날을 일러주오
〈후렴〉오만 날을 일러주오
〈선소리〉명년 삼월 봄이오면
〈후렴〉〃
〈선소리〉산보차로 오시려나
〈후렴〉〃
〈선소리〉북악산이 평지되어
〈후렴〉〃
〈선소리〉대천바다 물밀며는
〈후렴〉〃
〈선소리〉선유차로 오시려나
〈후렴〉〃
〈선소리〉타향에 으이가졌나
〈후렴〉〃
〈선소리〉외방으로 장사 가셨나
〈후렴〉〃
〈선소리〉한번가신 맹인님은
〈후렴〉〃
〈선소리〉다시오기 어려워라
〈후렴〉〃

